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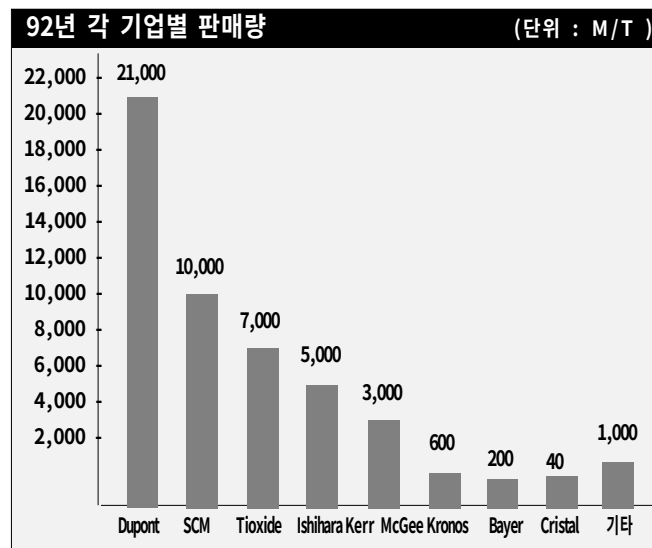
TiO₂ 가격 또다시 하락

7월초 Dupont 30달러 인하 ... Tioxide 등 뒤따라

이산화티타늄(TiO₂)의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
지난 7월5일 Dupont이 전체적으로 TiO₂ 루타일(Rutile)형 가격을 KG당 30 달러씩 인하하자, SCM · Tioxide · Ishihara 등 전 수입상들도 가격을 인하, 2/4분기 KG당 1600~1630달러에 형성됐던 가격이 현재 KG당 1570~160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각 수입상들이 일률적으로 30달러씩의 가격인하를 각 수요처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, 수요처를 분류해 탄력적으로 가격다변화 정책을 사용, 가격 하락폭은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다. 또 일부 수입상들은 공식적인 가격인하와 함께 리베이트까지 실시하고 있는 등 TiO₂의 가격인하는 현재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.



이같은 지속적인 가격하락과 과당경쟁은 공급과잉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.

한편 지난해 전세계 TiO₂ 생산기업들이 재고조정을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공장가동률을 20% 정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산화티타늄 가격이 1990년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여 왔지만 이산화티타늄의 수급이 5년에서 8년을 주기로 변하기 때문에, 현재의 공급과잉이 95년에는 균형을 이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현재 미국 · 유럽 · 일본에서는 TiO₂ 루타일형의 가격이 KG당 1900달러선에서 안정되고 있으나, 아시아에서는 가격경쟁이 치열, 대만 · 필리핀 등의 지역에서는 국내가격보다 훨씬 싼 것으로 알려졌다.

각 기업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92년 총 수요량 4만7840톤 중 Dupont 2만 1000톤 43.9%, SCM 1만톤 20.9%, Tioxide 7000톤 14.6%, Ishihara 5000 톤 10.5%, Kerr McGee 3000 6.3%톤 순이다.

<화학저널 1993/9/13>